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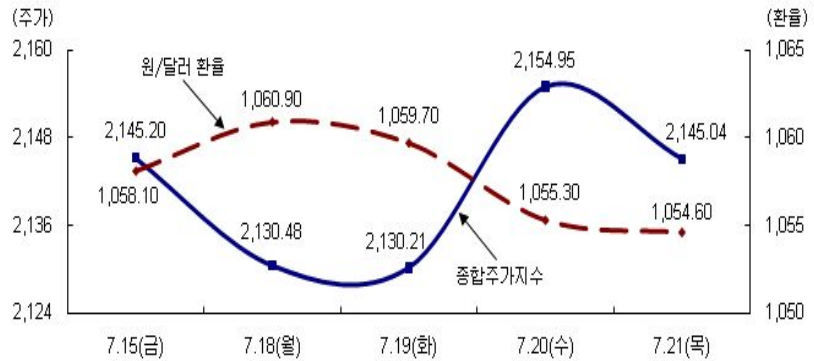
HRI Weekly Economic Review



[청년층 임금 수준도 악화되고 있다]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7.15~7.21)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청년층 임금 수준도 악화되고 있다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7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성 : 김 민 정 연구위원 (2072-6212, kimmj@hri.co.kr)

Executive Summary

□ 청년층 임금 수준도 악화되고 있다

■ 청년 일자리 창출 미흡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고용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어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대졸 취업자의 경우 학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급증하고 있다. 한편, 청년층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분석해 본 결과 청년층의 임금 수준이 하락하여 일자리의 질적인 악화도 우려되고 있다.

■ 청년 근로자 임금 수준 악화

우선 청년층의 임금수준을 분석해보면 첫째, 청년층의 상대적 임금이 하락하고 있다. 청년층 임금 수준이 전체 임금근로자에 비해 하락세를 지속함에 상대적 임금이 하락하고 있다. 매년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을 100으로 환산하여 청년층의 상대적 임금을 산출한 결과, 2007년 청년층의 임금은 78.2이었으나 하락세를 지속하며 2011년 74.3으로 낮아졌다. 둘째, 청년 임금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청년층의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실질임금 하락폭이 전체 임금근로자보다 크게 나타났다. 셋째, 저임금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다. 도소매 및 음식 숙박 등 저임금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전체 근로자에 비해 높고 청년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교육서비스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임금 수준이 악화되고 있다. 넷째, 판매직 종사자의 임금 수준이 악화됐다. 청년 임금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직종 중에서 임금 수준이 낮은 판매직 종사자의 임금수준이 자영업의 부진과 구조조정 영향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다섯째, 청년층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정체되어 있다. 중위임금의 2/3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경우 감소세를 나타내는 반면, 청년층은 정체되어 있어 임금 격차 해소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층의 임금 격차를 분석해보면 첫째,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정규/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청년층보다 더 크게 나타나지만 청년층의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 증가율이 전체 임금근로자보다 더 높다. 둘째, 학력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고졸의 임금 상승률이 초대졸 및 대졸의 임금상승률보다 낮아 학력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이에 따라 학력인플레가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 또한, 청년 임금근로자의 학력별 격차 증가폭이 전체 임금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 해소가 미흡하다. 우리나라는 기업간 전직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고 직장 규모별 임금격차가 커서 청년층이 처음부터 대기업으로만 몰려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층의 구직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 시사점과 과제

청년 취업의 양적인 측면이 악화되는 가운데 청년층의 임금 수준도 악화되고 있다.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하여 일자리를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청년층에게 직장체험 및 직업훈련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청년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특정 직종과 업종에의 쏠림 현상을 예방하고 과도한 학력간 임금격차를 해소하여 학력인플레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임금 차별을 방지하고 정규직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책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 청년층 임금 수준 악화되고 있다 >

청년 일자리 창출 미흡	
현황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가운데,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실업률은 높아 고용 상황이 더욱 악화

청년 근로자 임금 수준 악화		
임금 수준	상대적 임금 하락	청년층의 임금 수준이 전체 임금근로자와 비교해서 감소세를 나타내 상대적 임금이 하락
	실질 임금 감소세 지속	2009년 이후 청년층의 실질임금 상승률이 지속적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실질임금 하락폭이 전체 임금근로자보다 크게 나타남
	높은 저임금 산업 종사 비중	도소매 및 음식 숙박 등 저임금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전체 근로자에 비해 높고 청년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교육서비스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임금 수준이 악화
	저임금 직종의 임금수준 악화	자영업의 부진과 구조조정 영향으로 청년 임금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직종 중에서 임금 수준이 낮은 판매직 종사자의 임금수준이 더욱 악화
	저임금 근로자 비중 정체	전체 임금근로자의 저임금 근로율은 감소세를 나타내 개선되는 반면 청년층 저임금 근로율은 18%대에 머물러 개선이 미흡
임금 격차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 확대	정규/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전체 임금근로자가 청년층보다 더 크게 나타나지만 청년층의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 증가율이 전체 임금근로자보다 더 높게 나타남
	학력별 임금 격차 증대	고졸의 임금 상승률이 초대졸 및 대졸의 임금상승률보다 낮아 학력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이에 따라 학력인플레 심화가 우려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 지속	우리나라는 기업간 전직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고 직장 규모별 임금격차가 커서 청년층이 처음부터 대기업으로만 몰려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층의 구직난은 심화

시사점과 과제	
시사점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신규 일자리 창출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함과 더불어 청년층의 임금 감소로 일자리의 질적 상황도 악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하여 일자리를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 - 청년층에 직장체험 및 직업훈련 등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청년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 취업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함

1. 청년 일자리 창출 미흡

○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

-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실업률¹⁾은 높아 고용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
 -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2004년 49.2%에서 계속 하락하여 2010년 43.8%로 5.4%p 떨어졌고, 이에 따라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35%를 차지하는 청년층 인구는 동기간 30만 명 이상이 증가
 - 청년층의 고용률은 동기간 45.1%에서 40.3%로 4.8%p 하락하였는데 동기간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률은 1.1%p 하락에 그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신규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전체 취업자 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청년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세
 - 15~29세 청년 신규 일자리는 2004년 이후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전체 취업자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20.3%에서 2010년 16.4%로 3.9%p 감소²⁾

< 전년대비 취업자 증감 추이 >

(단위: 천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1/4
전 체	418	299	295	282	145	-72	323	422
청년 취업자	-28	-129	-180	-68	-119	-127	-43	-49

자료 : 통계청.

주 : 1) 청년층은 15-29세를 나타냄

2) 2011년 1/4분기는 전년동기대비 증감임.

○ 청년층의 임금 수준이 하락하여 일자리의 질적인 악화가 우려

-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고용 안정성도 취약함에 따라 대졸 취업자의 경우 학자금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증가함
 - 대졸 청년층은 학자금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증가하여 최근 학자금 신용불량자가 급증³⁾하는 등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

1) 청년 실업률은 2004년 이후 7~8%대로 전체 실업률 3%대 보다 2배 이상 높음

2) 총인구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22.5%에서 2010년 20.6%로 1.9%p 하락하였는데, 청년취업자가 전체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폭이 더 커서 인구 구조 변화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청년층 취업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학자금 대출제도가 생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4월까지 학자금 원금 또는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불량자가 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생은 총 4천163명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됨

2. 청년 근로자 임금 수준 악화

2-1. 청년층 임금수준 분석

○ (상대적 임금 하락) 청년층 임금 수준이 전체 임금근로자에 비해 하락세를 지속

- 청년층의 임금 수준이 전체 임금근로자와 비교해서 낮아지는 추세임
 - 매년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을 100으로 환산하여 청년층의 상대적 임금을 산출한 결과, 2007년 청년층의 임금은 78.2이었으나 하락세를 지속하며 2011년 74.3으로 낮아짐
 - 고실업 속에서 비록 일자리를 구했다 하더라도 청년층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하락하여 청년층의 워킹푸어(working poor) 증가

< 청년층의 상대적 임금 지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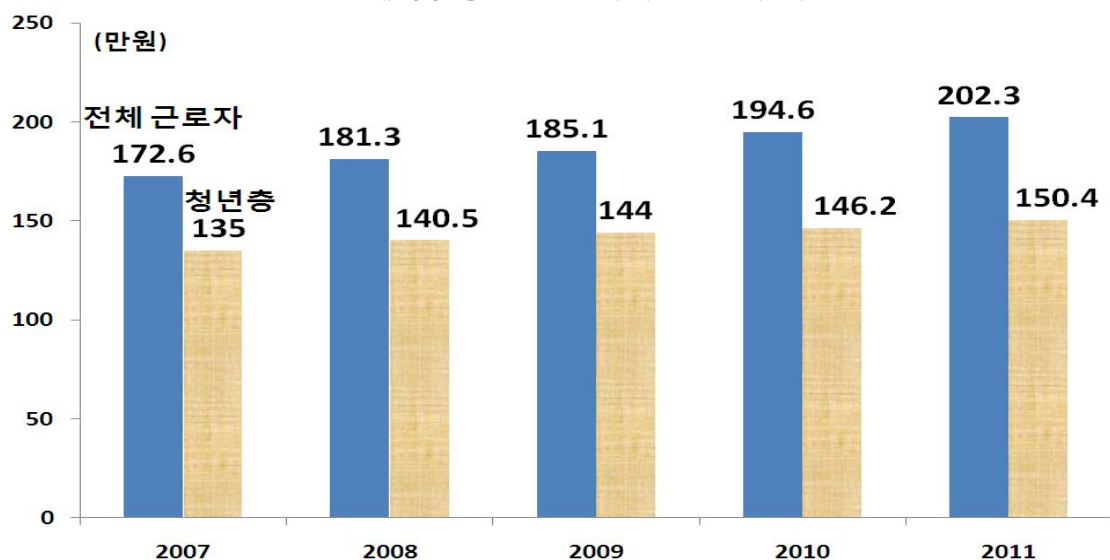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임금근로자	100	100	100	100	100
청년층 임금근로자	78.2	77.5	77.8	75.1	74.3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주 : 매년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을 100으로 환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청년층 임금수준을 계산

- 청년 임금근로자의 임금 증가율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 증가율보다 낮음
 - 2011년 청년층의 임금은 전년대비 2.9% 증가한 150만원을 기록한 반면 전체 임금근로자는 동기간 4% 증가하여 202만원을 기록하여 청년층의 상대적 임금 하락

< 전체 및 청년 근로자의 임금 추이 >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주 : 임금근로자 기준이며 비임금근로자는 제외 (이하 모든 표와 그래프 동일)

○ (실질임금 하락) 청년층의 명목임금 증가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보다 낮고 명목임금 증가율이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해 청년 임금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이 2009년 이후 지속적인 마이너스를 기록

- 청년층의 명목임금 증가율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명목임금 증가율 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
 - 2011년 3월 전체 임금근로자의 명목임금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4%증가한 반면에 청년층은 2.9% 증가에 그침
 - 2009년을 제외하고 전체 임금근로자의 명목임금 증가율이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명목임금 증가율 보다 높게 나타남

< 명목임금 증감률 추이 >

	2008	2009	2010	2011
전체 임금근로자	5.0	2.1	5.1	4.0
청년층 임금근로자	4.1	2.5	1.5	2.9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주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을 나타냄

- 명목임금 증가율이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해 청년 임금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이 2009년 이후 지속적인 마이너스를 기록
 - 2009년 이후 청년 임금근로자의 실질임금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실제 임금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감소했음을 의미
 - 전체 임금근로자도 2011년 실질임금 증가율이 -0.7%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는 하였으나 청년 임금근로자의 증가율인 -1.7%보다 감소폭이 작게 나타남

< 실질임금⁴⁾ 증감률 추이 >

	2008	2009	2010	2011
전체 임금근로자	1.1	-1.7	2.8	-0.7
청년층 임금근로자	0.1	-1.3	-0.8	-1.7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주 : 실질임금=100*(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

4) 실질임금이란 물가상승 효과를 제거한 실질적인 임금을 나타내고 이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낸 임금을 의미함

○ (저임금 산업 종사 비중이 높음) 교육서비스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청년층의 임금 수준이 악화되고 있으며, 도소매 및 음식 숙박 등 상대적 저임업종에 종사하는 비중이 전체 근로자에 비해 높음

-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임업종인 교육서비스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청년층의 임금 수준이 악화되고 있음
 -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2007년 84에서 2011년 79로 하락, 사회복지서비스업은 동기간 92에서 86으로 하락
-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임업종인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업종에 청년층의 종사 비중이 높음
 - 청년층의 도소매, 음식숙박, 사회복지, 교육 서비스에 종사하는 청년층의 비중은 46%인데 비해 전체근로자는 35%에 불과

<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임금 지수 >

	2007	2008	2009	2010	2011
제조업	100	100	100	100	100
건설업	90	93	98	100	103
도매 및 소매업	80	79	80	79	78
운수업	98	98	107	97	98
숙박 및 음식점업	60	57	55	57	5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99	103	101	94	103
금융 및 보험업	108	112	121	129	12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3	105	106	110	10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4	85	84	82	8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7	105	96	93	105
교육 서비스업	84	84	79	81	7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2	98	93	89	8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3	68	64	63	5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3	74	76	73	74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주 : 1) 산업 9차 개정을 적용하여 분류하여 주요 산업분야만 정리함.

2) 제조업 임금을 100으로 환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임금 수준을 계산한 수치임

3) 2010년 기준 각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제조업 17%, 도매 및 소매업 15.8%, 교육 서비스업 12.2%, 숙박 및 음식점업 9.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순으로 이들 산업에 많이 취업되어 있음

< 전체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임금 지수 >

	2007	2008	2009	2010	2011
제조업	100	100	100	100	100
건설업	82	87	90	88	88
도매 및 소매업	76	77	79	77	78
운수업	98	103	104	98	97
숙박 및 음식점업	55	55	54	53	5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122	125	127	125	136
금융 및 보험업	135	140	142	138	14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1	123	134	138	14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3	66	68	64	6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22	126	122	106	113
교육 서비스업	108	108	110	103	10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5	95	87	77	7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4	75	79	69	6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3	74	75	72	75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주 : 1) 산업 9차 개정을 적용하여 분류하여 주요 산업분야만 정리함.

2) 제조업 임금을 100으로 환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임금 수준을 계산한 수치임

3) 2010년 기준 각 산업에 종사하는 전체 취업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제조업 16.9%, 도매 및 소매업 15%, 교육 서비스업 7.5%, 숙박 및 음식점업 7.9%, 건설업 7.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8% 순으로 이들 산업에 많이 취업되어 있음

○ (저임금 직종의 임금수준 악화) 저임금직종 가운데 청년층이 많이 종사하는 판매 종사자의 임금수준이 악화됨

- 청년 임금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직종 중에서 임금 수준이 낮은 판매 종사자의 임금수준이 점차 악화되고 있음
 - 임금 수준이 낮은 판매 종사자의 임금수준은 2007년 81에서 2011년 73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자영업의 부진과 구조조정 영향을 반영함
 - 청년 임금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에 비해 숙련 및 경력이 낮음에 따라 사무 종사자 대비 직종간 임금격차가 전체 임금근로자에 비해 작음
 - 단순노무 종사자도 2007년 70에서 2011년 63으로 하락
- 청년층의 고학력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문직과 사무직에 비해 처우가 나쁘지 않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 대한 선호도가 낮음
 - 전체 근로자의 비중은 11.3%이지만 청년층의 취업 비중은 7.3%에 그침

<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직종별 임금 지수 >

	2007	2008	2009	2010	2011
사무 종사자	100	100	100	100	100
관리자	179	169	182	133	13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05	110	104	102	101
서비스 종사자	69	68	70	69	68
판매 종사자	81	75	80	71	73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93	99	92	77	82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104	104	99	98	99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01	101	99	100	105
단순노무 종사자	70	68	64	61	63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 주 : 1) 직업 6차 개정을 적용하여 분류함 (아래 표와 동일)
 2) 사무종사자의 임금을 100으로 환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임금 수준을 계산 (아래 표와 동일)
 3) 2010년 기준 각 직종에 종사하는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9.2%, 사무 종사자 26.2%, 서비스 종사자 12%, 판매 종사자 11.5% 장치, 단순노무 종사자 8.1%,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7.3% 순으로 이들 직종에 많이 취업되어 있음

< 전체 임금근로자의 직종별 임금 지수 >

	2007	2008	2009	2010	2011
사무 종사자	100	100	100	100	100
관리자	195	201	191	192	20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12	116	111	111	111
서비스 종사자	58	60	58	59	61
판매 종사자	72	70	67	66	68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52	53	58	58	6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77	79	76	78	79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84	84	81	85	88
단순노무 종사자	45	46	43	42	44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 주 : 2010년 기준 각 직종에 종사하는 전체 취업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9.2%, 사무 종사자 15.7%, 서비스 종사자 10.2%, 판매 종사자 12.3%,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1.3%, 단순노무 종사자 13.5%로 이들 직종에 많이 취업되어 있음

○ (저임금 근로율 개선 미흡) 전체 임금근로자의 저임금 근로율은 감소세를 나타내 임금격차가 개선되는 반면, 청년층 저임금 근로율은 18%대에 머물러 개선이 미흡

- 청년층의 저임금 근로율이 18%대에 정체되어 임금 격차 해소가 미미하게 나타남
 - 청년층의 저임금 근로율은 18%대로 정체된 반면에 전체 임금 근로자의 저임금 근로율⁵⁾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 2007년 25%대에서 2011년 18%로 하락하여 최근 전체 임금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다소 완화됨
- 청년층은 저임금 산업분야에 많이 종사하고 저임금 산업분야의 임금 수준이 더욱 악화되어 청년층 저임금 근로율 개선이 미흡
 - 청년층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 및 산업의 임금 수준이 악화되고 청년층의 비정규직 임금이 열악하여 청년층의 저임금 근로율 개선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저임금 근로율 추이 >

	(%)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임금근로자	25.1	22.7	21.5	20.4	18.0
청년층 임금근로자	18.1	18.9	16.5	18.9	17.9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주 : 1) OECD의 정의에 따라 저임금 근로율은 임금근로자 중위임금의 2/3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2) OECD에서 발표한 2007년 수치는 25.6%를 나타내나 위 자료는 2007년 3월 부가조사만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이므로 약간의 차이가 발생

5) OECD 선진국의 저임금 근로율은 벨기에 6.3%(2006년), 핀란드 7.9%(2007년), 덴마크 12%(2007년), 뉴질랜드 12.7%(2008년), 영국 21.1%(2008년), 캐나다 22%(2008년), 미국 24.5%(2008년), 호주 17.5%(2008년), 일본 15.1%(2008년)를 나타냄

2-2. 청년층 임금 격차 분석

○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확대) 정규직의 임금상승률은 비정규직보다 높아서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확대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짐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청년층보다 전체 임금근로자가 더 심각하지만 임금격차 증가율은 청년층이 높게 나타남
- 2011년 청년층의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는 2007년 대비 91.6% 증가했으나, 전체 임금근로자는 동기간 40.9% 증가
- 2011년 청년층 정규직의 임금은 2007년 대비 15.8% 증가했으나 청년층 비정규직은 동기간 오히려 0.3% 감소하여 임금격차가 확대

< 청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추이 >

(단위 : 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임금근로자	정규직 (A)	198.8	209.6	216.8	229.7	236.3
	비정규직 (B)	127.4	127.1	123.3	125.3	135.7
	임금 차이 (A-B)	71.4	82.5	93.5	104.4	100.6
청년층 임금근로자	정규직 (A)	143.7	154.2	158.0	162.1	166.4
	비정규직 (B)	118.6	112.8	114.0	112.5	118.3
	임금 차이 (A-B)	25.1	41.4	44	49.6	48.1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주 : 세금 공제 전 월평균 임금을 나타냄

- 정규직 기준 비정규직의 상대적인 임금이 하락하여 임금 격차 확대
- 전체 임금근로자의 경우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2007년 36에서 2011년 43로 확대된 반면 청년층의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2007년 17에서 29로 더 크게 벌어짐

< 전체 정규/비정규직 임금 지수 추이 > < 청년 정규/비정규직 임금 지수 추이 >

	2007	2008	2009	2010	2011
정규직	100	100	100	100	100
비정규직	64	61	57	55	57

	2007	2008	2009	2010	2011
정규직	100	100	100	100	100
비정규직	83	73	72	69	71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주 : 위 표는 청년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의 임금을 100으로 환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계산한 수치임

○ (학력간 임금 격차 확대) 고졸의 임금 상승률이 초대졸 및 대졸의 임금상승률보다 낮아 학력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력인플레이 추세를 막기에 역부족임을 알 수 있음

- 2011년 청년 임금근로자의 학력간 임금 격차가 2007년에 비해 확대됨에 따라 고학력화 추세를 막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요망됨
 - 매년 고졸 임금을 100으로 환산하여 임금 지수를 산출한 결과, 고졸과 초대졸의 임금 지수 격차가 2007년 17이었으나 2011년 30으로 확대
 - 고졸과 대졸의 임금 지수 격차가 2007년 41이었으나 2008년 55로 확대되었고 2009년 소폭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여 2011년 50을 기록
- 전체 임금근로자의 학력별 격차도 확대되고 있으나 청년 임금근로자의 학력별 격차 증가폭 보다는 작은 편임
 - 전체 임금근로자의 고졸과 초대졸의 임금 격차가 2007년 12였으나 2011년 19로 소폭 확대되고 고졸과 대졸의 임금격차도 2007년 63에서 2011년 67로 소폭 확대
 - 고학력자일수록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이 더 크게 증가

< 전체 학력별 임금 격차 >

	2007	2008	2009	2010	2011
고졸	100	100	100	100	100
초대졸	112	115	116	116	119
대졸	163	164	168	163	167

< 청년 학력별 임금 지수 추이 >

	2007	2008	2009	2010	2011
고졸	100	100	100	100	100
초대졸	117	129	121	126	130
대졸	141	155	147	150	150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주 : 1) 임금 지수는 고졸 임금을 100으로 환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임금 수준을 계산한 수치임
- 2) 청년취업자의 학력별 비중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고졸 42.3%, 초대졸 26.3%, 대졸 27.5%를 차지함

○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 지속)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의 해소가 미미하고, 청년층보다 전체 근로자의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더 심각하여 청년층의 중소기업 회피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청년 및 전체 임금근로자의 기업 규모별 임금 지수 격차 해소가 미미하며, 전체 임금근로자의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청년층보다 훨씬 심각함
 - 1~9인, 10~99인 규모의 청년층 근로자의 임금과 대규모 기업의 청년층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소폭 확대
 - 하지만, 100~299인 규모의 청년층 근로자의 임금과 대규모 기업의 임금 격차는 다소 완화
- 기업의 임금 격차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⁶⁾에 따라 청년층의 대기업 쏠림 현상은 강화되어 구직난은 심화되고 중소기업은 인력난 심화
 - 우리나라는 기업간 전직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지 않고 직장 규모별 임금격차가 커서 청년층이 처음부터 대기업으로만 몰려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심화되고 청년층의 구직난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전체 기업규모별 임금 지수 추이 > < 청년층 기업규모별 임금 지수 추이 >

	2007	2008	2009	2010	2011		2007	2008	2009	2010	2011
1~9인	42	43	42	41	42	1~9인	61	59	60	57	59
10~99인	65	66	65	62	64	10~99인	81	80	80	78	79
100~299인	76	77	78	75	77	100~299인	83	83	91	89	89
300인 이상	100	100	100	100	100	300인 이상	100	100	100	100	100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주 : 1) 2010년 기준 각 규모별 기업에 종사하는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1~9인 41.9%, 10~99인 39%, 100~299인 9.8%, 300인 이상 10.2% 을 각각 나타냄
 2) 임금 지수는 300인 이상 기업의 임금을 100으로 환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임금 수준을 계산한 수치임

6) 기업의 규모와 생산성은 일반적으로 비례하여 규모가 큰 기업은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있고 높은 임금은 유능한 근로자 채용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유능한 근로자 채용은 더 높은 생산성을 유발하여 기업의 규모별 임금 격차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3. 시사점과 과제

- (시사점)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신규 일자리 창출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함과 더불어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악화되는 등 일자리의 질적 상황도 악화되고 있음
- (과제)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하여 일자리를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
 - 단순히 일자리 양 늘리기에 치중한 정책보다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필요
 - 기업이 장기적 시각에서 정규직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책적인 인센티브 제공
 -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확대되고 청년들의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청년 임금근로자의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마련 시급
 - 청년층에게 직장체험 및 직업훈련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청년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특정 직종과 업종에의 쏠림 현상을 예방
 - 마이스터고 및 대학 재학생들이 중소기업 인턴쉽과 중소기업 현장 훈련에 관심을 갖도록 장학제도와 연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개발
 - 청년층의 일부 산업과 직종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만큼 초·중·고교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와 직업군에 대한 교육을 강화
 - 직무급과 성과급의 정착을 지원하여, 학력간 임금격차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
 - 학력보다는 능력에 따라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임금체계를 직무급과 성과급 중심으로 개선하여 학력간 임금격차의 확대를 예방
 -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임금 차별을 방지하여 임금 격차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정책적 방안 마련
 - 사회적 안전망의 보완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및 근무 조건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
 - 중소기업과의 동반 해외진출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전략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수익성을 제고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

김민정 연구위원(2072-6212, kimmj@hri.co.kr)

<첨부>

< 임금근로자 규모 및 비중 추이 >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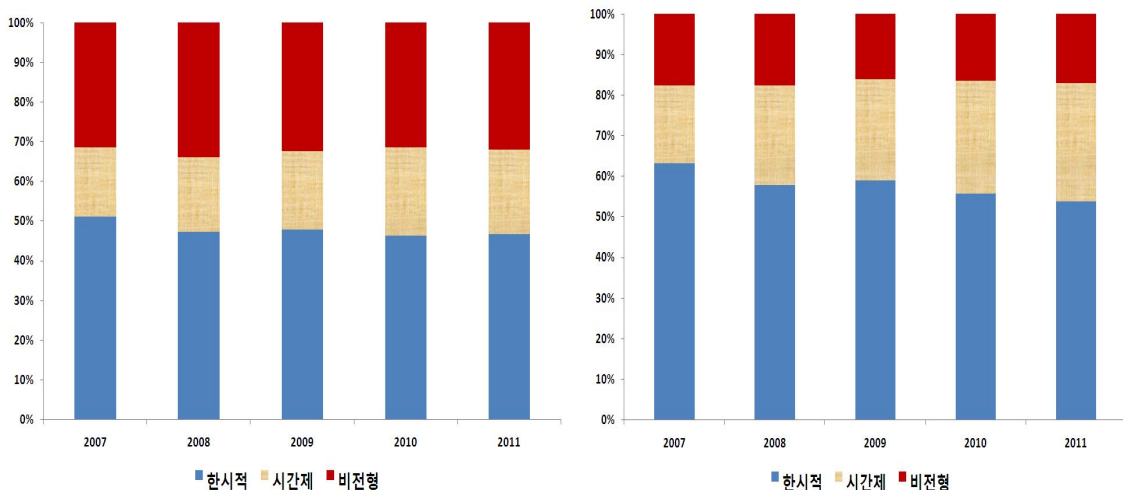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임금 근로자	15,731	15,993	16,076	16,617	17,065
정규직 (비중)	9,958 (63.3)	10,356 (64.8)	10,702 (66.6)	11,119 (66.9)	11,294 (66.2)
비정규직 (비중)	5,773 (36.7)	5,638 (35.2)	5,374 (33.4)	5,498 (33.1)	5,771 (33.8)
청년층 (비중)	3,826 (24.3)	3,733 (23.6)	3,567 (22.2)	3,549 (21.4)	3,531 (20.7)
정규직 (비중)	2,540 (66.4)	2,488 (66.6)	2,427 (68.0)	2,426 (68.4)	2,378 (67.3)
비정규직 (비중)	1,287 (33.6)	1,245 (33.4)	1,140 (32.0)	1,123 (31.6)	1,153 (32.7)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주 : 통계청의 정의에 따라서 청년층은 15-29세를 나타냄

비정규직은 통계청의 정의에 따라 한시적근로자(기간제근로자)와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고용근로자, 가정내근로자, 일일근로자)를 포함함

< 전체 비정규직의 근로형태별 추이 > < 청년 비정규직의 근로형태별 추이 >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주 : 통계청의 정의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한시적근로자 (기간제근로자)와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고용근로자, 가정내근로자, 일일근로자)에 중복 해당될 수 있음.

< 전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

(단위: 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고졸	정규직	170.4	177.4	180.2	191.2	195.9
	비정규직	112.3	114.3	110.7	116.0	121.1
초대졸	정규직	177.9	188.2	192.5	203.2	212.6
	비정규직	142.5	148.1	145.8	150.9	159.4
대졸	정규직	259.4	270.3	280.8	293.2	304.2
	비정규직	197.0	195.2	186.0	177.8	202.9
대학원졸	정규직	346.4	355.7	367.2	381.3	382.2
	비정규직	272.7	252.7	256.5	266.9	269.4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주 : 세금 공제 전 월평균 임금을 나타냄

< 청년 임금근로자의 명목임금 상승률 × 청년 임금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률 >

명목 청년 (%)		2008	2009	2010	2011	실질 청년 (%)		2008	2009	2010	2011
고졸	정규직	1.7	4.3	0.8	5.0	고졸	정규직	-2.2	0.4	-1.5	0.3
	비정규직	-8.4	1.4	1.1	-3.7		비정규직	-11.9	-2.4	-1.2	-8.0
초대졸	정규직	7.2	2.1	2.7	5.1	초대졸	정규직	3.1	-1.7	0.4	0.4
	비정규직	4.4	-4.8	2.9	3.9		비정규직	0.4	-8.4	0.6	-0.7
대졸	정규직	9.9	2.3	1.4	-0.4	대졸	정규직	5.8	-1.5	-0.9	-4.8
	비정규직	-1.5	-3.0	-3.3	10.0		비정규직	-5.3	-6.7	-5.5	5.1
대학원졸	정규직	3.7	4.3	-3.5	-3.1	대학원졸	정규직	-0.2	0.4	-5.7	-7.4
	비정규직	-7.3	-17.1	-4.7	32.7		비정규직	-10.8	-20.2	-6.8	26.7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주 : 실질임금=100*(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

< 청년 명목임금 증감률 추이 >

(%)

청년 명목 임금	2008	2009	2010	2011
고졸	-2.7	5.9	-0.7	2.1
초대졸	6.7	-0.4	3.5	5.4
대졸	7.6	0.1	1.2	1.9
대학원졸	-0.5	-0.6	-5.5	5.9

< 청년 실질임금 증감률 추이 >

(%)

청년 실질 임금	2008	2009	2010	2011
고졸	-6.3	1.9	-3.0	-2.5
초대졸	2.7	-4.1	1.2	0.6
대졸	3.5	-3.6	-1.1	-2.7
대학원졸	-4.3	-4.3	-7.6	1.2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주 : 1) 실질임금=100*(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

2)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을 나타냄

3) 청년취업자의 학력별 비중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고졸 42.3%, 초대졸 26.3%, 대졸 27.5%, 대학원졸 1.2%를 차지함

< 전체 임금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률 >

(%)

실질 전체		2008	2009	2010	2011
고졸	정규직	0.2	-2.2	3.7	-2.1
	비정규직	-2.1	-6.8	2.4	-0.3
초대졸	정규직	1.8	-1.5	3.2	-0.1
	비정규직	0.0	-5.2	1.2	0.9
대졸	정규직	0.3	0.0	2.1	-0.9
	비정규직	-4.7	-8.3	-6.6	9.0
대학원졸	정규직	-1.2	-0.6	1.5	-4.3
	비정규직	-10.8	-2.3	1.7	-3.6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주 : 실질임금=100*(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

< 기업 규모별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 >

(단위: 만원)

전체	2007	2008	2009	2010	2011
1-9인	118.2	124.6	124.7	132.0	138.2
10-99인	181.5	191.3	193	201.1	209.1
100-299인	213.5	224.5	233.3	242.6	253.7
300인 이상	279.4	289.8	297.9	324.4	328.8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주 : 세금 공제 전 월평균 임금을 나타냄

< 기업 규모별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임금 >

(단위: 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1-9인	109.0	110.6	113.1	113.3	118.0
10-99인	143.9	150.3	152.1	155.2	157.6
100-299인	147.3	156.8	171.6	177.7	177.0
300인 이상	177.5	189	189.1	199.7	199.0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주 : 세금 공제 전 월평균 임금을 나타냄

< 전체 임금 근로자의 학력별 임금 격차 지수 >

		2007	2008	2009	2010	2011
고졸	정규직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65.9	64.4	61.4	60.7	61.8
초대졸	정규직	104.4	106.1	106.8	106.3	108.5
	비정규직	83.6	83.5	80.9	78.9	81.4
대졸	정규직	152.2	152.4	155.8	153.3	155.3
	비정규직	115.6	110.0	103.2	93.0	103.6
대학원졸	정규직	203.3	200.5	203.8	199.4	195.1
	비정규직	160.0	142.4	142.3	139.6	137.5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주 : 매년 고졸 정규직의 임금을 100으로 환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임금수준을 계산한 수치임

< 전체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임금 추이 >

(단위 : 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제조업	정규직	197.0	205.5	205.5	224.8	231.4
	비정규직	149.5	138.0	139.2	140.4	150.9
건설업	정규직	203.1	218.9	232.5	243.8	249.6
	비정규직	124.3	128.2	128.5	136.2	146.1
도매 및 소매업	정규직	158.6	169.8	179.1	191.1	197.2
	비정규직	112.3	104.6	103.6	102.6	112.8
운수업	정규직	142.7	213.3	217.9	217.0	221.2
	비정규직	151.3	147.4	153.0	158.9	162.7
숙박 및 음식점업	정규직	158.6	123.2	125.6	132.9	141.0
	비정규직	79.8	79.7	73.7	76.2	85.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정규직	244.5	261.4	266.5	279.7	311.0
	비정규직	184.5	189.2	208.6	207.3	249.3
금융 및 보험업	정규직	297.0	324.3	327.8	350.9	349.8
	비정규직	207.8	209.2	205.1	216.7	243.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정규직	230.4	243.4	271.9	308.2	318.3
	비정규직	216.8	212.7	216.8	220.0	247.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정규직	170.5	191.7	193.6	200.5	201.3
	비정규직	105.9	112.2	113.2	119.3	122.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정규직	271.1	280.7	298.9	303.2	318.8
	비정규직	80.7	93.2	74.0	69.3	83.7
교육 서비스업	정규직	243.5	247.0	258.8	269.7	287.9
	비정규직	123.6	130.7	129.3	128.3	135.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정규직	188.5	194.7	187.1	187.2	187.7
	비정규직	147.6	152.8	124.6	118.6	124.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정규직	163.9	170.2	180.6	176.8	189.6
	비정규직	103.1	105.9	111.2	96.2	97.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정규직	148.9	155.2	162.8	163.4	181.5
	비정규직	107.8	111.7	102.3	115.8	112.8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 주 : 1) 산업 9차 개정을 적용하여 분류함.
- 2) 주요 산업분야만 정리함.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9년					2010					2011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미국	-2.6	-4.9	-0.7	1.6	5.0	2.9	3.7	1.7	2.6	3.2	2.8
유로 지역	-4.1	-2.5	-0.1	0.4	0.2	1.8	0.4	1.0	0.4	0.3	1.6
일본	-6.3	-20.1	10.8	-1.9	7.3	3.9	6.0	2.1	3.3	-1.1	1.4
중국	8.7	6.2	7.9	9.1	10.7	10.3	11.9	11.1	10.6	9.8	9.6
한국	0.2	-4.3	-2.2	1.0	6.0	6.2	8.5	7.5	4.4	4.7	4.3

주: 1) 2011년 전망치(E)는 IMF 2011년 1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7월15일	7월21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83	3.89	3.30	2.91	3.01	0.10%p
	엔/달러	92.93	88.43	81.19	79.14	78.84	-0.30 ¥
	달러/유로	1.4413	1.2238	1.3350	1.4163	1.4267	0.0104\$
	다우존스지수(p)	10,428	9,774	11,578	12,480	12,724	244p
	닛케이지수(p)	10,655	9,383	10,229	9,974	10,010	36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4.41	3.86	3.38	3.68	3.75	0.07%p
	원/달러(원)	1,164.5	1,222.2	1,134.8	1,058.1	1,054.6	-3.5원
	코스피지수(p)	1,682.8	1,698.6	2,051.0	2,145.2	2,145.0	-0.2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7월15일	7월21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79.35	75.77	91.40	97.30	99.09	1.79\$
	Dubai	78.06	73.14	88.80	109.80	111.50	1.70\$
CRB선물지수	283.38	258.52	332.80	346.30	345.27	-1.03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